



동양인쇄사 사옥과 내부모습

Dy 東洋印刷社

철저한 납기 준수, 품질 관리로 신뢰

전통적인 경인쇄에서 디지털인쇄로 과감한 변신

지난 1988년 6월에 설립된 동양인쇄사(대표 김문선)는 관공서의 인쇄물량을 주로 수주하며 성장해 온 인쇄회사이다. 설립 초기에 6명으로 출발한 이래 지난 92년 확장 이전한 데 이어 98년에 현재 사업장으로 사옥을 준공, 이전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21년의 짧지 않은 연륜을 가지고 약 20명의 직원을 거느린 동양인쇄사는 주로 시청, 구청, 사업소 등 관공서를 위주로 팜플렛, 보고서, 교재, 전단지, 포스터 등 다양한 인쇄물을 제작해 왔다.

대부분의 매출을 유달리 짧은 납기와 까다롭게 품질을 따지는 것으로 알려진 관공서의 인쇄물로 달성한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만큼 동양인쇄사의 인쇄품질관리와 공정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뜻한다.

일찌감치 생산설비 자동화에 관심 가져

김문선 대표가 인쇄업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1984년. 20여년의 세월을 넘어 30년의 연륜을 쌓았다. 김 대표는 당시 국내 인쇄업계는 시장규모면에서는 세계적으로 큰 시장이었고 외형적으로 화려한 면모를 보이고 있었다고 기억한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작업환경과 인쇄시설을 비롯하여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생산공정의 자동화로 인해 낮은 생산성, 채산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에 주목했다.

김 대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최대한 빨리 인쇄업의 작업공정 자동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생각보다 기회는 빨리 찾아왔다. 소규모업체이기는 했지만 1988년 인천 동양장 4거리 부근에서 직원 6명과 함께 인쇄사를 차려 독립했고 직원들의 안전한 가정생활을 위한 것은 주요 경영

목표로 삼을 정도로 든실한 사내 복지를 지원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동양인쇄 설립 10년째를 맞이한 지난 1998년 현재의 사옥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고 탁구장, 헬스장, 샤워장 등의 직원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해마다 2차례 씩 야유회를 가져 직원들의 가족까지 함께 단합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 대표는 근로지역 환경개선 및 처우개선이 애사심 고취를 통해 결국 회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믿고 91년 인천지역의 인쇄사들이 모인 친목모임인 '인문화'를 만들었다. 제16대 회장을 지냈으며 인천지역 인쇄산업의 발전 및 보다 나은 인쇄환경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외환위기가 자동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나라를 뒤흔든 외환위기는 여지없이 인쇄업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동양인쇄사도 큰 어려움을 맞이했다. 이때 동양인쇄도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였지만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다. 남아 있는 직원들의 미래가 걱정됐고 그런 생각은 회사를 접고 싶다는 생각을 일찌감치 버리게 했다. 이에 따라 동양인쇄사는 그 당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인쇄설비(마스터인쇄기, 오프셋인쇄기, 제판시설, 무선기, 접지기, 정합기 등)를 현대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단시간 내에 이를 완료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대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는 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완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추진해 왔고 최근 대신정보통신에서 VP-6250을 도입한 것도 이와 연계된 작업이었다. 동양인쇄사는 이에 따라 시대적인 트렌드인 디지털인쇄기를 통한 현대화로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인쇄기의 원활한 사용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방인 인천지역의 인쇄물량을 놓고도 장비와 설비 면에서 앞선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서울의 대형 인쇄사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는 서울

업체들과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어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요즘에 오히려 과감한 투자를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여러 회사에 견적을 의뢰하고 꼼꼼한 검토를 거쳐 동양인쇄사에 가장 적합한 기종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한 끝에 오세의 디지털인쇄기를 구매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한편, 이번에 동양인쇄사가 도입한 VP(VarioPrint)6250은 경인쇄용 흑백 디지털인쇄기로서 250PPM(A4 기준)의 작업속도를 낼 수 있으며 LED조명, 1200DPI, 1411pi의 사양을 갖고 있다. 대신정보통신에서는 "양면 동시 인쇄로 용지의 변형이 없는 작업을 지원할 뿐 아니라 중질지 등 다양한 용지로 작업을 할 수 있어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소량 다품종에 적합한 인쇄기"라고 말했다. 또한 조작이 간편한 스케줄러를 이용해 높은 생산성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VP6250은 경인쇄, POD, 전문출력점 등의 장비현대화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양인쇄사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경인쇄에 주력해 온 회사의 주력 부문을 VP6250 도입을 계기로 과감하게 디지털화했으며 이를 더욱 가속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람의 몫'

김 대표는 직접 마라톤 대회에 적극 참가하는 등 인천시에서는 널리 알려진 마라톤 동호 회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을 동양인쇄사의 사훈으로 하고 요행을 바라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꾸준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데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

김상호 부장



동양인쇄사
김문선 대표